

與野 “허위 인터뷰, 대선공작” vs “채 상병사건, 국정농단”

(與)

(野)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방전’ 전·현직 대통령 거론하며 고성
與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건”
野 “수사 외압, 은폐·조작 밝혀야”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민배-신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공작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열리자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

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자, 김 위원장은 이를 반박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3일 남겨놓고 발표된 ‘김민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에 대해 “이

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

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조 의원 발언에 호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7월 31일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며 “그날 아침 대통령실 티타임에서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관 혹은 장관 주변과 통화했는지 여부, 그에 따라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부의 잘못된 명령 체계에 대해 거부하고 군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점에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격노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정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기현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참석
“아동학대특례법 개정 전 선행”
이태규 “학교 현장 바로 세울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법 4법(초·중·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50만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고 저희 세대는 배워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워 왔다”며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예 시달리고 악성 민

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습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우리 당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

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학부모, 학생과 함께 선생님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엇보다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전혜숙 ‘코로나19 극복기’ 북콘서트, 이낙연 등 정치인 총출동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참여해 격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3선)의 13일 북콘서트에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직 국회의원 20명이 참여해 전 의원을 격려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강당 A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힘내라 대한민국 : 한국 코로나 극복 세계 챔피언’ 북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극복기 경험을 회상했다.

전 의원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준 백신 제

조사와 의료단체 관계자를 칭찬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총출동 했다.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박광운 원내대표·조정식 사무총장, 서영교·고민정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윤호중·안규백·전해철·정준숙·송기현·박용진·박홍근·위성근·최인호·백해련·김주영·윤후덕·이병훈·이해식·홍기원·전용기·도종환·우원식·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축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당시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위원장을 맡았고 전 의원

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저는 사회나 보는 사람이었는데 전문 지식은 전부 전 의원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대응행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전 의원의 지난 저서에도 추천사를 써줬다는 전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기에서 전 의원의 활약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기록하지 않으면 망각한다. 책을 내는 것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질병으로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을 해놔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尹, 교황청에 강승규 수석 특사 파견

‘韓-교황청 수교 60주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교황청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 특사를 통해 교황청이 해방 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데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특사는 성 베드로 성당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등 대한민국에 보여

준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교황청과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3시(한국시각 오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 미사와 축복식이 진행된다.

강 특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교황청을 방문하면서 유홍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면담,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미사와 축복식에 참석하는 등 교황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일정을 수행한다. /박정익 기자